

종립학교 '제2의 창학' 부푼 꿈

금정중 100주년, 보문·광동·정광중 60주년
타임캡슐·문집발간·축제 등 기념 행사 만발

반세기를 훌쩍 넘긴 불교계 종립 학교들이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개교기념 행사를 여는 등 '제2의 창학'에 한창이다.

이 종립학교들은 운허, 만암 등 근대의 큰스님과 선각자 스님들이 해방 이후 세운 학교들이다. 당시 인재가 없어 나라를 빼앗겼다'는 뼈아픈 자상으로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은 셈이다.

불교계 종립학교 중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연다.

21일 오후 3시에는 KBS부산총에서 금정100년을 축하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는 교내에 각종 전시회와 교내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금정산을 오르는 '10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열린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향해 노골적인 마수를 뻗치던 1906년,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범여사 스님들이 힘을 모아 '명정학교'

로 첫 발을 내딛었던 금정중은, 이후 나라가 흥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946년 9월 25일 개교한 대전 보문중학교(교장 윤여진)는 9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교60주년 기념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계사는 보문학교 이사장 덕혜스님.

1946년 대강백 운허 스님의 촉구에 따라 봉선사 봉영사 수곡사 현등사 흥룡사 등의 사찰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남양주 광동중학교(교장

이학송)도 올해 60주년을 맞는다. 광동중은 10월 중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개교100주년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묻는 '기념행사'를 봉행한다. 또 설립자 운허 스님의 기일을 추모해 11월 30일 기념문집과 <광동60년사>를 발간한다.

광주 정광중학교(교장 강춘식)도 10월 14일 개교60주년 기념행사와 백일장, 그리고 총동문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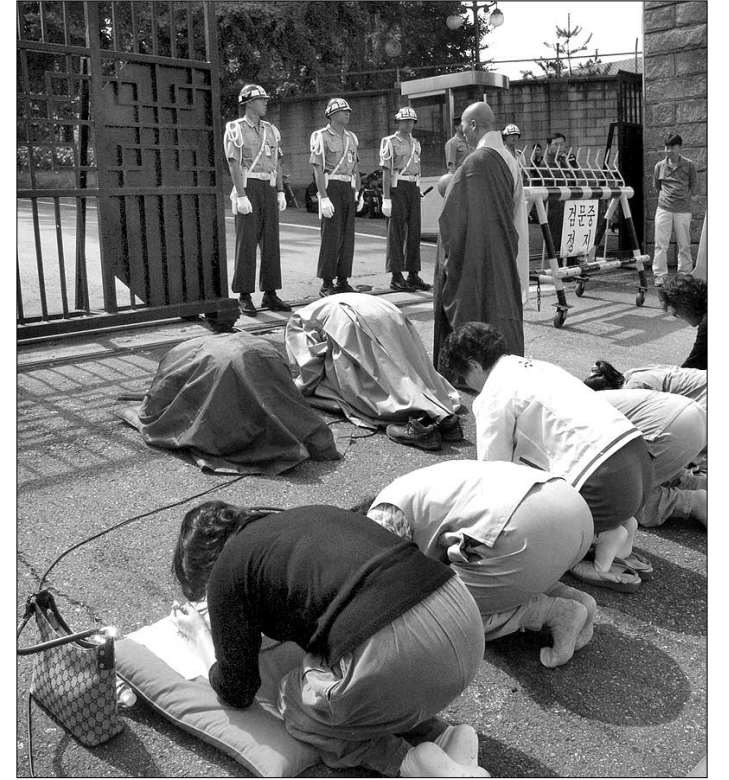
정광중은 만암 스님의 제안으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5개 학교가 교육 불사에 동참

해 설립된 학교.

또 4월 8일 기념행사를 봉행한 부산 해동중학교(교장 손태석)도 10월 20일 체육대회와 함께 60주년을 회고하는 행사를 펼친다.

광동중 이학송 교장은 "당시 스님들은 나라와 미래의 동량을 세우기 위해 전답을 팔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한 큰스님들의 정신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용주사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14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골프연습장 철거'를 주장하며 108배 참회를 하고 있다.

'불교관계법 개선' 포럼 이해봉 국회정각화청 초청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9월 29일 오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관계법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포럼을 연다.

정책포럼은 허경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봉 국회 정각화청의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00명 선착순이며 등록금 2만원. (02)735-2428

정책포럼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으로 불교와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공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3회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해 열렸던 '제2회 불교 클래식 애니메이션 공모전'의 3회차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클래식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드화) 등 응용 분야를 늘렸다. 주제 또한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정주제는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로 정해졌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터넷(www.koreatemple.net)이나 우편(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콘텐츠팀)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2011-1855-6

리움박물관서 1000명 친견법회

26일, '사리찾기 추진위'

불교계가 리움박물관에 소장 중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되돌려 받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원담)는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3차 정례회를 갖고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반환받기 위해 9월 26일 오후2시 리움박물관에서 불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리 친견법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등사 주지 초계 스님은 "추진위는 리움박물관 측에 9월 9일까지 사리와 사리구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

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리움박물관 측의 '불법 시위성 집회 신고'에 대비해 경찰 경찰서에 집회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9월 18일 이후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친 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피고 측인 박물관에 와서 항의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외 당원 추진위와 리움박물관의 어떠한 무력 충돌과 시위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부산 백스코에서 지난 6월 열린 개신교계의 대규모 청년집회인 'Again 1907 in Busan'에서 나온 말이다. 1만 5000명의 개신교 청년 신자들이 참가한 당시 집회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이후 종교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에는 대형 전광판에 '해운대구 교회(139개)의 부흥, 사찰(71개)이 무너지도록(해운정사)...'라고 써 있다.

이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신들이 사찰이 무너지길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길 원한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며 예수님 불신을 지극히 외치는 기독교에 질렸다" "다른 종교 역시 존중해주는 자세가 성숙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로 개신교의 행태를 꾸짖고 있다.

이 행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한 목사는 "개신교인들만 모이는 내부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봉영 기자 사진출처=다시인사이드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통과

'동원 규탄' 만장일치... 보상문제 새 국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9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인정과 책임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결의안은 피해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규정하고, 위안부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이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할 것과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14일 '일본의 주변국 관계'라는 제목으로 공개청문회를 열고 일본 과거사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은비 기자

서울시공보원 창립 기사화

서울시청과 서울시관리공단 불자회, 성북구청불자회 등 12개 서울시 자치단체 공무원 불자회 관계자들은 9월 11일 모임을 갖고 '가칭'서울특별시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기로 결의했다.

정후시 성북구청불자회장은 "현재 연합회 창립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경 다시 만나 세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창립법회는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총장후보선거 28일 강행"

교수회·노조 일정 공고... 법인 "이사회 법적 권한 침해"

동국대 자기 총장 선출을 두고 교수회와 학교법인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수회 및 노동조합측은 9월 14일 차기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8일 총장선거 등 선거일정을 15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캠퍼스 교수회(11명), 경주캠퍼스 교수회(9

"탄약고 만든다고 강제수용하더니..."

용주사, 골프연습장 철거·토지반환 요구

문화재보호구역내 골프연습장 증축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수방환경 침해를 받고 있는 화성 용주사가 골프연습장 철거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용주사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14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3시간여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고 국방부와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를 규탄했다. 집회에 참가한 100여 신도들은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08배 참회와 성명서 낭독, 국방부장관 면담 요구서한 전달 순으로 항의집회를 열었다.

용주사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남수원골프장 내 골프연습장은 용주사의 수방환경을 저해하는 물론 용주사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며 "골프연습장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주사는 소유주인 국방부 외 허가권자인 문화재청과 화성시청에 대해서도 전통사찰보존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용주사측은 "탄약고 대신 골프장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 법적,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공 고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기구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기에 공고 하오니 종도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겸 중정권한대행 중앙총회부의장

원 로 의 원

규 정 원 장
규정원부위원장
전국비구니회장의 전 실 장
상 별 위 원 장
사 무 총 장
교 육 원 장
문 화 원 장
포 교 원 장

향 운 인 담 지 상

의 전 부 장
규 정 부 장
감 찰 부 장
재 무 부 장
총 무 부 장
사 회 부 장
문 화 부 장
교 육 부 장
포 교 부 장

사 서 실 장

직 할 총 무 원 장
부 산 직 할 총 무 원 장
서 울 총 무 원 장
부 산 총 무 원 장
대 전 총 무 원 장
울 산 총 무 원 장
경 기 총 무 원 장
강 원 총 무 원 장
충 북 총 무 원 장
전 남 총 무 원 장

혜 담

경 북 총 무 원 장
경 북 남 총 무 원 장
안 동 총 무 원 장
경 남 총 무 원 장
서 부 경 남 총 무 원 장
전 국 비 구 니 회 장
비 구 니 북 원 장
비 구 니 남 원 장

도 봉 법 경 명 석 광 암 범 산 명 관 자 성 인 명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겸 중정권한대행 향 운
대한 불 교 원 효 종 규 정 원 장 흥 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겸 중정권한대행 향 운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지난 10여년간 분규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오직 종단안정을 기원하신 종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근간에 총무원을 무단 침입하여 행정서류 일부와 전화를 무단 이전하여 원효종의 이름으로 승려증을 발부하고 있는바 지난 6월 15일 중앙총회에서 결의된 해종행위자에 대한 체탈도첩을 공고하오니 원효종도께서는 이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르고자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만성취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립니다.

체탈 도첩 공고

법명	속 명	제 적 사	체탈도첩일
청운	우효식	광운정사	2006. 7. 15
상운	하영기	감 로 사	"
청산	박인수	죽 립 사	"
도현	안정철	도현정사	"

위 스님들은 중헌종법 제 4장 10조에 의거 체탈도첩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불기 2550(2006)년 9월 일